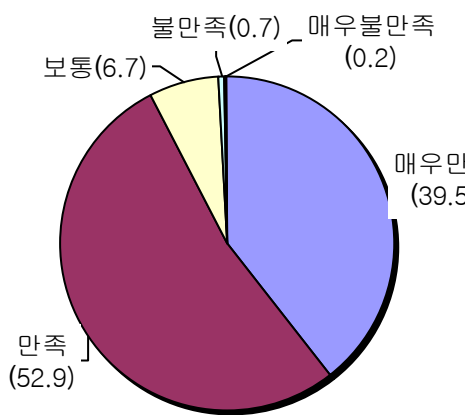




2004년 조합간부 역량강화 교육 평가

조합간부 만족도 92.3%에 달해...향후 실천력 담보가 과제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평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2004 전국조합간부 역량강화교육에 대해 조합간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매우만족과 만족이 92.3%에 달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특히 교육생들은 교육이 진행되는 내내 매우 높은 몰입도와 열정을 보였으며 교육 후 사기도 높아졌다.

8대 집행부들여 전 조합간부를 상대로 한 첫 집체교육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내부강사진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진 데 큰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노사대토론회와 임단협체결과정에 대한 영상교육은 중앙본부와 지부장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그동안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소문을 불식시킬 수 있었다.

또한 ▲정책과제 및 하반기 사업 ▲단체협약 및

규약규정 해설 ▲대중앞에서의 전달기법 ▲산재업무처리 방법 및 대응 ▲ KT의 임금체계 및 복지수준 등에 대한 교육은 지속적인 심화교육을 요구하기도 했다.

분임토의는 늦은 시간에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장시간 토론하고 각자의 고민과 고충 등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 조합활동을 반성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당당한 조합간부가 되겠다는 결의를 밝히는 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한편 조합간부들은 향후 희망하는 교육으로 노동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등에 대한 교육과 대중앞에서의 전달기법에 대한 기회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으며 교육기회의 확대를 건의하기도 했다.

노동조합은 지난 18일 중앙상집 미팅을 통해 빠듯한 일정속에서도 역량강화 교육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평가하고, 차기교육은 더욱 다양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현장의 조합간부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보다 많은 대화의 시간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집합, 순회교육 등으로 다가갈 것을 다짐했다.

농촌일손돕기 시행
중앙상집, 경기도 여주에서
농촌일손돕기통해 구슬땀흘려



15일 지재식위원장과 중앙상집, 이용경사장과 본사 노사협력팀, 복지팀, 인사팀, 총무팀, 홍보팀 등 3백여명은 추계체육행사를 대신하여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광대1리 그린투어 마을농가를 방문하여 벼베기, 고구마 캐기, 과일 거두기 등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농촌일손돕기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농업환경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농촌이웃을 돕기 위해 노동조합이 주장하여 사회공헌활동으로 전환 시행하기로 노사간 협의했으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했다.

한편, 현업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자율적으로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해 주신 전국의 조합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UNI아시아태평양 통신분과회의 참석

지재식위원장과 상집간부 4명은 필리핀 세부에서 10일부터 열린 UNI아시아태평양 통신분과회의에 참석하고 14일 입국했다.

이번 UNI아시아태평양 통신분과 회의는 전체적



으로 전세계 공통적인 사안인 통신회사의 민영화, 구조조정, 분사화 등과 아태지역의 통신발전, 기술변화에 대한 관심, 다국적 기업의 횡포 등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태지역 각국의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자국 노동조합 실태에 관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며 회의가 진행됐다.

지재식위원장은 "경영참가를 위한 KT노동조합 활동사례"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2003년 진행했던 노동조합의 사외이사 추천활동을 소개하고 사상최초로 집중투표제 청구까지 전개하는 등 주총투쟁 과정을 설명하고, 노동조합의 경영참여가 세계적인 대세이며 사외이사 추천활동으로 쟁취한 우리사주직선제의 의의를 설명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경영참여의 발판을 만들 것이라는 주제의 발표문을 발제했으며, 전체 회의는 국제투기자본(론스타 펀드)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반대와 대만중화텔레콤 민영화 반대 등 7개 사항에 대한 결의문 채택을 끝으로 회의를 마쳤다.

한편 마지막날인 13일에 있었던 UNI-APRO와 필리핀 협의회에서 준비한 초청만찬회에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므로써 이번회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차별에 저항하라!!

정부의 파견법 개정안, 비정규직의 나라 만들 것

96년 김영삼정권이 정리해고제와 함께 날치기 통과시켰던 근로자파견법은 26개 업종에 한해서만 파견근로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면서 오히려 그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현재 사용자와 자본은 온갖 편법을 동원하며 파견노동을 사용하였다. 최근 금호타이어, 타워크레인, 현대자동차 등에서 불법파견이 문제가 되자, 자본은 훨씬 자유롭게 파견근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파견법 개악을 요구하였고, 정부는 자본의 의견을 전폭 수용한 최악의 파견법 개악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했다.

<정부안의 문제점>

① 파견업종 전면확대로 비정규직 양산

파견업종 전면확대는 가장 심각한 비정규직 확산안이다. 이전 법에서 금지해왔던 파견법 도입으로 중간착취가 합법화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수많은 파견노동자가 나타난 바 있으며 도급을 위장한 불법 파견도 횡행하고 있다. 정부안은 이러한 파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견업종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파견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파견업종 전면 확대와 함께 사용자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정부가 파견 남용 방지 방안이라고 제시한 이른바 휴지기는 전혀 남용방지 방안이 아니며 오히려 임시계약직(기간제)의 자유로운 사용과 연동하여 “파견직-임시계약직-파견직” 형태의 비정규직의 순환적 계속 사용을 유도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② 비정규직 사용의 제도화, 전면화

정부안에는 비정규직 억제, 또는 남용 방지의 핵심인 임시직(기간제) 사용의 사유제한이 빠져있다. 사용

자가 임시직 비정규 노동자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비정규직 확산과 남용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시직을 사용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2003년 초에 노동부는 이러한 사유제한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제외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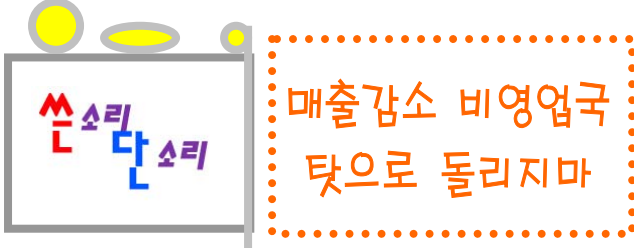
노동부는 3년의 기간제한 안, 즉 임시직을 3년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3년 초과된 경우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안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안으로 입법이 된다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3년 기간 이내의 임시계약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될 것이다. 결국 정부안은 임시직의 남용을 규제하는 방안이 아니라 3년 기한의 임시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일반화함으로써 우리 고용시장을 비정규직 중심으로 재편하게 될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게 될 안이다.

3년이 지난 임시계약직에 대해서 해고를 제한하겠다는 것을 남용규제 방안이라고 내세우고 있으나, 이 법 조항에 대해 임시계약직을 3년 이상 고용할 사업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사용자들은 3년이 되기 전에 임시직을 계약해지하거나, 다른 임시직으로의 대체 하게 될 것이다. 파견도 자유롭게 사용하므로 기업측에서는 파견과 임시직의 사용을 ‘적절하게’ 운영하여 비정규직 사용을 일반화하게 될 것이다. 이미 2년마다 해고와 고용이 반복되고 있는 파견노동자들의 실태에서 정부의 남용규제 방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방안인지 알 수 있다.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 사용의 억제와, 부당한 차별의 해소, 권리보장의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폐 등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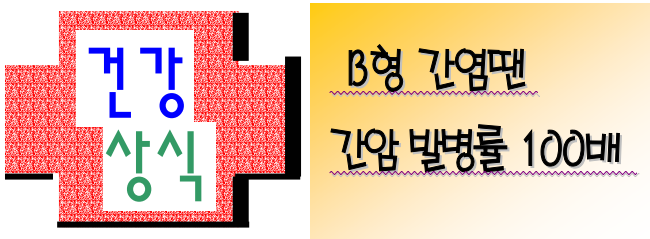
4 주간KTU

서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파견법의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출처:노동조합 게시판 2004.10.13]

비영업국 직원들 다 나름대로 알게 모르게 상품홍보 및 수요자가 있으면 영업 rm들에게 정보를 주고 있으며 고객들을 대면할때 마다 우리 상품 이용을 권장(사정) 하고있다.그러나 지금 통신시장에서는 신규 가입자는 찾아보기 힘들고.그동안 상품 강매로 인하여 그거품들이 빠지고 있어 매출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어떤 높은분은 다시 옛날처럼 돌아 갔으며 하는 생각으로 간부들에게 호소 하는것 같은데...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경영방식 입니다! 경영자라면 이 어려운 위기에 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부하 직원 탓으로 돌리면은 관리자로써 행동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비영업 직원들 그냥 회사 주는돈 받아먹고 있다고 생각 하시지는 말아 주십시오!



[출처:DAUM 건강상식]

▲ 간에 이상이 발견되면 술, 과식, 성분 미상의 약이나 식품을 멀리하고 3~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

입으로 섭취한 모든 물질이 대사되는 통로는?

바로 3000억개의 세포로 구성된 무게 1.5kg의 장기인 간(肝)이다. 간은 수분·영분의 균형, 단백질 합성, 지방·에너지 대사는 물론 세균과 독소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해로운 물질 섭취는 간손상과 직결되며 특히 간이 나쁜 환자에는 치명적이다. 대한간학회(<http://www.kasl.org>)가 정한 제5회 간의 날(10월 20일)을 맞아 간질환의 실태와 대책을 알아보았다.

◆ 간질환 왕국

우리나라에선 아직도 국민병이라 불릴 만큼 간질환 환자가 많다. 실제 간암 발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1위이며, 특히 40대 남성의 경우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여성의 9배다. 우리나라 간암 발생의 주범은 간염 바이러스. 현재 알려진 간염 바이러스는 A.B.C.D.E.G 등 여섯 종류인데 만성간염을 일으키는 B형(간암 환자의 약 70%)과 C형(간암 환자의 10~20%)이 문제다.

특히 B형 간염의 경우 국내에 간염 백신이 보편화되기 이전 세대인 25세 이상 성인에선 바이러스 보유자가 7%나 된다. 바이러스 보유자란 지금 당장은 간기능이 정상이나 몸속에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상태. 면역기능이 떨어지면 언제든 간염이 발병할 수 있다. 간암 발생률도 정상인의 100배다.

◆ 모호한 증상이 특징

간질환의 문제점 중 하나는 간이 '침묵의 장기'라는 점이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불편함이 없더라도 정기검진 등에서 간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즉각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개인별 '맞춤치료'가 최선책

만성 간질환은 원인·환자 상태 등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진다. 따라서 개인에 따른 맞춤치료가 필요하다. 예컨대 항바이러스 치료제

만 하더라도 B형간염은 인터페론.라미부딘.아데포비어 중 한 가지를, C형은 인터페론과 리바비린을 함께 복용해야 하며 치료기간도 다르다.

연세대의대 소화기내과 한광협 교수는 "염증 반응이 미미한 환자는 일반적인 간 건강수칙을 지키면서 3~6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검사와 검진만 받으면 된다"고 들려준다.

음식도 마찬가지다. 일례로 간세포 재생을 위해선 단백질이 좋지만 진행된 간경화증 환자는 혼수에 빠질 위험이 높으므로 오히려 제한해야 한다.

[만성간염·간경화증 환자의 생활수칙]

1. 주치의를 한명 정한다.
2. 자가 진단이나 처방을 하지 않는다.
3. 주치의가 처방하지 않은 약.건강기능식품 등은 절대 안 먹는다.
4. 비전문가의 의견이나 검증 안된 치료법(인터넷 정보 포함)은 무시한다.
5. 금주한다.
6. 과식 안 하고 가급적 소량씩 자주 먹는다.(하루 4~5회 정도)
7. 무리하지 않는 한 일상생활은 정상으로 유지한다.
8. 정상체중을 유지한다.
9. 3개월에 한번은 정기검진을 꼭 받는다.
10. 식단에 대해 영양사 상담을 한번쯤 받는다

주말에 떠나는
문화체험

강화 석모도 여행

[출처:DAUM 주말여행]

갈매기, 새우깡과 함께 하는 즐거운 뱃길

석모도 보문사에 가려면 강화 제2대교 다시 말하자면 초지대교를 너머서 외포리 포구를 찾아야 가야 합니다. 초지대교를 넘자마자 우회전 초지진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전등사 앞을 지나 온수리에서 좌회

전해서 약 20분정도 가면 외포리가 나옵니다. 외포리 포구는 석모도를 찾는 사람들로 항상 북새통을 이루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늘어선 횃집이나 가게를 지나야만 포구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곳으로 진입하는데 적잖게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로 만들어진 포구는 널찍한 선착장이 마련되어 큰 버스 몇 대쯤 진입해도 관촬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우선 외포리에 도착하면 차를 가지고 석모도에 들어 갈 것인지 아니면 차를 두고 몸만 들어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차를 가지고 가려면 승용차의 경우 15,000원의 도선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하고 버스의 경우 30,000원 정도의 별도 요금을 내야 합니다. 도선료는 편도 600원. 차를 가득 실은 석모도행 배가 움직이면 어김없이 이쪽저쪽에서 갈매기가 모여든다. 그곳에 모여드는 갈매기는 마치 훈련이 되어 있는 양 배가 떠남과 동시에 배를 따라 끼룩끼룩 거리며 같이 이동을 시작합니다. 미리 준비한 새우깡을 한 움큼 집어 들어 갈매기를 향해 힘껏 던지면 이리저리 날아들던 갈매기들이 그를 받아 먹기에 분주해지지요. 하나씩 던져주면 묘기 부리듯 그를 낚아채는 훈련이 잘된 갈매기도 있습니다. 갈매기와 놀 틈도 없이 금세 석모도 선착장이라는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불과 10여분도 안되는 뱃길이지만 갈매기와 즐거움을 나누면서 눈 깜짝할 사이 석모도에 도착 배에서 내려 보문사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전원 풍경의 보문사 가는 길 석모도 선착장에서 보문사를 향해 가는 길은 정겨운 시골 풍경이 펼쳐지고 언덕 넘고 들을 지나면 왼쪽으로 민머리해수욕장이라는 커다란 안내판이 보입니다. 그 길을 따라 들어가면 초입에 많은 천일염을 만드는 염

전이 있고 거기서는 천일염이라고 하는 소금을 팔고 있습니다. 민머리 해수욕장은 염전이 끝나는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보이지요. 민머리 해수욕장 입구를 지나 10여분 안에 보문사 주차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보문사로 오르는 길 양 옆으로 음식점이 들어 차 보문사에 오르는 우리를 인삼막걸리와 야채나 새우튀김으로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길을 오르면 곧 오르막이 나오고 일주문에서 문화재 입장료 1,500원을 내고 다시 절에 오릅니다. 절까지 오르려면 아직도 가파른 길이 계속되어 관절염이나 다리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고생이 이만 저만 아닙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때가 되면 보문사 종로루가 눈앞에 들어옵니다. 보문사 마당에 이르기 전 바로 아애 조그만 마당에서 물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이고 보문사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관음도량과 낙조가 아름다운 보문사

밭길을 옮겨 보문사 올라오는 입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석굴 나한전을 먼저 들어가 볼까요? 자연 석굴 안에 나한을 모시고 있는데 동네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던진 그물에 물고기 대신 22개의 불상이 올라와 그것을 버리고 그물을 던지니 불상이 계속 올라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날 밤 꿈에 스님이 나타나 불상을 잘 모시면 복을 받으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지니 그 불상들이 올라와서 이곳 석굴에 모셨다고 전해집니다.

석굴 나한전을 둘러보고 극락전을 돌아서 마애관세음보살상이 있는 눈썹바위까지 계단을 한참 올라야 눈썹바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제주 산방굴사에 오르는 계단 모양...

눈썹바위에 오르면 바위에 새긴 마애관세음보살이 있는데 1928년 작품으로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보살상입니다. 마애불 위에는 마치 사람 눈썹처럼 생긴 바위라고 해서 이를 눈썹바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관세음보살이라 판단하는 기준은 마애불 옆에

명문이 있기도 하지만 보관에 아미타불의 화불이 있기 때문이지요. 해가 질 무렵 낙조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 분들도 많다는군요. 저 멀리 서해바다와 갯벌이 보이고 이곳에서 보는 낙조의 아름다움 또한 대단합니다.

>찾아가는 방법

석모도 보문사를 찾아가려면 서울 올림픽대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김포공항 방향으로 가다가 행주대교가 끝나는 곳과 합류점에서 강화로 가는 뚝방길을 택해야 한다. 그 길을 따라 계속 가면 애기봉으로 직진하는 길과 초지대교로 가는 길로 갈라지는데 초지대교 방향을 택해 초지대교 건너 우회전한다. 초지진을 지나자마자 여관 앞에서 좌회전해서 가다보면 전등사 입구가 나오고 전등사 입구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온수리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좌회전하면 외포리까지 약 20분 정도가 소요된다. 외포리에서 석모도행 배를 타고 10분... 석모도 선착장에서 보문사까지는 약 20분이 소요된다.

>여행 참고 사항

석모도는 주말이나 휴일에는 상당히 붐빈다. 특히 주말이나 일요일 오후에는 보문사에서 석모도 선착장까지 오는데 만 2시간 이상을 잡아야 한다. 그를 피하는 방법은 선수포구로 나가는 방법(선수 포구로 가는 선착장이 별도로 있음)이나 오전을 택하면 편히 다녀올 수 있으며 석모도에서 숙박하고자 하면 많은 펜션들이 있으니 예약하고 가면 숙박도 가능하며, 연인이나 가족이 당일로 다녀올 수 있고 드라이브 코스로도 제격이다. 코스모스 핀 가을 길을 따라 여행을 해 보자. 연계 답사 여행으로는 석모도 보문사 --> 부근리 고인돌--> 고려궁지, 용흥궁, 성공회강화성당 -->역사박물관 --> 광성보, 덕진진 -->전등사 --> 정수사 등으로 행로를 정할 수 있다.

지방본부소식



지부소식

